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체계적 보존 관리

집중호우·태풍에 붕괴 우려 군, 9월까지 종합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관광상품화도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창읍 죽림리 일대에 조성된 고창 고인돌공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창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문화관광자원화에 나섰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고인돌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당수의 고인돌이 경사면에 위치해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붕괴 우려가 커 종합적인 보존정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적지 내 고인돌의 종합적 안전진단과 보강 작업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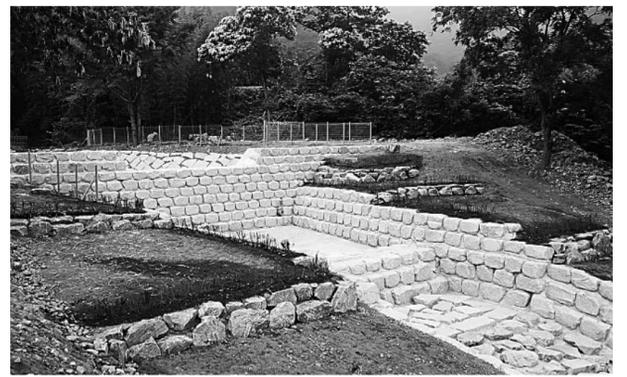
또 고인돌 표주석 설치와 잡목 및 적층물 제거 등을 통해 가까이서 고인돌을 볼 수 있게된다.

이와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 공간 재현, 주변 관광자원인 봉덕리 고분군, 서산산성, 용계리 청자요지, 운곡습지와의 연

계 등 관광상품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천제단 고인돌(도산리 고인돌)의 보존·활용을 위한 발전방향도 마련된다. 천제단을 바라보는 두 받침돌 사이의 각은 약 102도로 일 년 중 9월 말에서 10월

초의 일출 시간인 아침 8시 전후에 해당한다. 고창군과 학계는 이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부터 마한의 모로비리국까지 천제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고창의 자랑인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산사태 취약지 23곳 지정 안전관리 만전

정읍시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추가 지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정읍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3개소를 신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돌입했다.

또 지난 2013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사방사업이 완료된 6개소를 해제했다.<사진>

이번 신규로 지정된 곳은 산내면과 산외면, 칠보면 등 지난해 산사태 위험지로 조사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큰비로 인해 산계곡부의 토석과 나무 등이 밀려 내려와 주변 인가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이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을 포함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총 17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근 민가의 안전을 위해 비상 연락망과 대피소 등 대피 체계를 구축해 특별 관리하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방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7월부터 본격 시행

순창군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신청자를 연중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이 탈락한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

이하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 가구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 수급 기준인 1인 가구 252만원보다 완화된 1인 가구 273만원, 재산 3억 원 이하로 낮췄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전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주민복지실(063-650-1297)로 문의하면 된다.

이달 안으로 신청하는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7월부터 매월 30일마다 1인 가구 기준 20만4000원, 4인 가구 기준 41만5000원의 생계급여를 정액 현금으로 받게 된다. /순창=정영근 기자 jyj@

익산시, 국가산단 960억 투입 복합시설 신축

익산시는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병원, 상가 등이 들어설 복합 단지를 개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개선펀드사업에 세진개발이 추진하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진개발은 국비 160억원 등 총 960억원을 들여 익산 국가산단 내 세진산업의 부지 1만9000여㎡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노동자 기숙사·병원·상가 등이 들어설 근린생활시설과 체

육시설을 만든다. 기업들을 위한 4층 규모의 물류시설도 건립한다.

기숙사를 비롯한 각종 시설은 국가산단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다.

세진개발은 조만간 사업에 착수해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양파 해외수출로 활로 찾는다

대만에 7월말까지 1740t 수출 이어 미국 바이어와도 협상 추진

남원시가 양파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 가운데 해외수출로 활로를 뚫고 있다.

남원시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박해근)은 국내 양파가격 하락을 막고 유통·판매량 다양화를 위해 대만 바이어와 수출협상을 통해 7월말까지 1740t을 남원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상표로 수출하기로 했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최근 남원농협산지유통센터와 춘향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각각 48t씩 96t(4800방/20kg)을 공동선별해 선적했다.<사진>

미국 수출을 위해서도 바이어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국내 대형유통도매시장거래처, NH무역 등 수출업체들과도 활발히 가격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시는 또한 내달 초 시정에서 양파 팔아주기 소비확대 운동을 전개해 양파농가의 고통을 함께할 계획이다.

이번 양파 수출은 지리산 고령지에서 키운 남원농산물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은 데다, 신뢰와 정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바이어들과 교류로 이뤄낸 결실이다.

남원농협은 지난 2014년 남원농협 양파공선출회를 조직해 남원농협 육묘장에서 선별을 시작으로, 올해는 고죽동에 농



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최신식 양파선별기를 도입해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갖췄다.

남원에서는 올해 200여 농가에서 양파

97ha를 재배해 5680t을 생산, 국내 시장과 농협에 출하하고 나머지 물량은 저장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시, 옥구선 등 폐철도 구간 활용방안 모색

군산시는 33km에 달하는 폐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폐철도 예정 구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특색있고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얻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추경예산 확보 및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군산선, 옥구선, 페이퍼코리

아선, 부두선, 비행장선, 장항선 등 총 6개 철도 노선이 있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거 산단인입철도 등이 완공되면 대체되는 기존 노선은 폐선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폐철도를 관광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 및 여건, 토지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고 주민, 관계기관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